

김형연 전 법무비서관, '최강욱 항소심' 변호인단 합류

등록 2021.06.01 12:04:20



[서울=뉴시스] 김형연 전 법제처장. (사진=뉴시스 DB). photo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 류인선 기자 = 김형연(55·사법연수원 29기)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됐다.

1일 법원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은 지난 4월5일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-1부(부장판사 최병률·원정숙·이관형)에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했다.

최 대표의 변호인은 김 전 비서관을 포함해 4명이 됐다. 최 대표는 1심에서 법무법인 올림 소속 하주희 변호사 등을 선임했었다. 하지만 2심에서는 이들을 선임하지 않았다.

판사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. 이후 지난해 8월까지 법제처장을 지냈다. 법제처장 퇴임 후 3개월 뒤인 같은해 11월 법무법인 소속으로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.

김 전 비서관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임하기도 했다.

앞서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월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(집행유예 포함)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.

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ryu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